

#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4. 23. 선고 2020고합182 판결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,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## 수 원 지 방 법 원 평 택 지 원

### 제 1 형 사 부

### 판 결

|      |  |
|------|--|
| 사건   | 2020고합182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|
| 피고인  | A  |
| 검사   | 정성욱(기소), 조하림(공판)   |
| 변호인  | 법무법인 참본<br>담당변호사 변호사 정성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판결선고 | 2021. 4. 23.   |

#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  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 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죄사실

##### 1.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

피고인은 2020. 7. 2. 20:30경 평택시 B 앞 벤치에서 피해자 C(여, 14세)에게 뽀뽀 좀 해줘'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,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감싸 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쇄골부위를 손으로 쓸어

만졌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아동·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.

## 2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고인은 2020. 7. 2. 20:54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'너 자위행위 해 본 적 있어?', '자위행위 몰라?'라고 말을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#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# 1.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112신고사건처리표, 내사보고(피해의자 인적사항 특정), 수사보고(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), 수사보고(피해자 휴대전화 수신내역 첨부)

### 법령의 적용

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, 형법 제298조(아동·청소년 강제추행의 점, 징역형 선택)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(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, 징역형 선택)

#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[형이 더 무거운 아동·청소년의성범죄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(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)]

#### 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#### 1. 수강명령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

##### 1.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, 제50조 제1항 단서(피고인의 연령, 직업, 재범위험성, 이 사건 범행의 종류, 동기, 범행과정, 공개·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신상정보를 공개·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)

##### 1. 취업제한명령의 면제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(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, 범행 전력, 범행의 내용과 동기, 범행의 방법과 결과, 재범의 위험성,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)

### 양형의 이유

####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1년~15년

#### 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가. 제1범죄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]

[유형의 결정] 성범죄 > 01. 일반적 기준> 나.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 > [제2유형]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주거침입등 강제추행/특수강제추행

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1년~2년[청소년 강제추행(위계·위력추행 포함)은 2유형에 포섭하되,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/3로 감경]

나. 제2범죄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]: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. 1. 1.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, 이 사건은 2020. 10. 28.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

다.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: 징역 1년 이상(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)

라.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: 징역 1년~15년(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)

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

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 방법, 경위, 범행의 동기·수단·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○ 불리한 정상: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,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·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
○ 유리한 정상: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,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.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.

신상정보의 등록

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**판사 김세용(재판장) 하지인 노민식**